

Research Trends on Grit and Learning: Analysis of literature found in domestic and overseas academic journals published

Woocheol Kim

Jiyoung Kim

Minju Park

Koreatech

Grit defined as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 term goals is an emerging topic in the field of HRD, psychology and education. So far,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performance was only explored in the HRD field, even though there are learning and performance sides in HRD. The relationships between grit and learning have yet to be explore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grit and learning to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HRD through the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For this purpose, searching, reviewing the articles using staged review approach and synthesizing and analysing the final selected articles. The result provided that, first of all, basic information of selected articles such as publication year, country, research method, name of the journal and role of the grit. Second, synthesizing results are categorized into 4 topics: case of the training program, case of the formal education, case of the poor environment and the need of environment impro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academic/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Grit, Learning, Performance, HRD, Personality

I. 서 론

최근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을 뜻하는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인 Grit이 높은 성과의 전제조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Duckworth et al., 2007). Grit이란 지능 등의 선천적 재능과 상관없이 성과를 예측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특성을 뜻한다. 이 개념은 지난 10여년간 심리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학문적 및 실무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Duckworth et al., 2007).

Grit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교육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HRD분야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Credé, Tynan, & Harms, 2016). 높은 성과를 예측한다는 개인의 특성인 Grit의 개념적 정의와 특성들은 조직의 맥락에서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고(Credé, Tynan, & Harms, 2016; Eskreis-Winkler et al., 2014), 조직 내에서의 직무성과, 조직 잔류 등의 일부 HRD 관련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De Vera, Gavino, & Portugal, 2015). 또한, HRD 관련 포럼 및 학술대회 등에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업 인재의 조건으로 ‘Grit을 가진 인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김우철, 김지영, 2017; 김주환, 2017; 장원섭, 2017).

그러나 HRD 및 기업교육 분야에서 Grit과 관련된 논의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HRD분야에서 Grit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분야 내 활용가능성 및 Grit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에 비하여, HRD분야에서의 Grit 관련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Grit과 조직의 성과를 연계시킨 연구들이 일부 실시되었다(홍아정 외, 2017; Suzuki et al., 2015).

HRD분야는 HRD의 목적을 성과로 보는 관점과 학습으로 보는 관점이 모두 존재하는 학문 분야이다(배을규, 2009; Swanson, 2009/2010). HRD분야 내에서 Grit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학습의 관점 모두에서 Grit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욱이 Grit이라는 개념은 높은 성과를 예측하는 특성임과 동시에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인지적 특성 중 하나이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현림, 김지혜, 2017; Duckworth et al., 200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Grit은 성과와 학습을 주된 패러다임으로 갖는 HRD분야에서 높은 활용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를 통해서 HRD분야 내 Grit에 대한 이해와 학습 관점 하에서 Grit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rit이 학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그동안 실시된 Grit과 학습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문헌 탐색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Grit이 HRD와 기업교육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찾고, 향후 HRD분야에서 Grit이라는 변수의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실천 분야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Grit과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1) Grit

Grit은 분야에 상관없이 성공을 예측하는 비인지적 능력,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이 개념은 긍정심리학에서 연구가 시작된 개인의 성질 중 하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지능과 상관없이 성인이 되어서도 배양할 수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어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Duckworth et al., 2007). Grit은 관심에 대한 지속성(Consistency of interest)과 노력에 대한 인내(Perseverance of effort)로 하위변인이 구분되어 측정되고 있다(Duckworth & Quinn, 2009). Grit의 개념은 그동안 활발히 연구되어 왔던 성실성, 회복력, 자기통제 등의 개념과의 유사 및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Duckworth & Gross, 2014;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그러나 Grit은 목표를 설정하고 어떠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노력과 그것이 성과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전체를 뜻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개별 개념들과 구분된다(Reed & Jeremiah, 2017).

Grit의 효과는 Duckworth et al.(2007)의 연구를 시작으로 심리학과 교육학 등에서 끊임없이 검증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Grit의 성과는 개인의 학습결과, 교육성취, 육군사관학교 수료, 게임 경진대회 결승 진출, 작은 경력변화, 경력추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Duckworth & Gross, 2014;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Duckworth & Yeager, 2015; Eskreis-Winkler et al., 2014;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Von Culin, Tsukayama, & Duckworth, 2014). HRD분야에서는 업무몰입,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 업무에 대한 의미, 이직률, 자기주도학습역량, 조직몰입, 경력변화, 경력추구 등의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홍아정 외, 2017; Eskreis-Winkler et al., 2014; Ion, Mindu, & Gorbănescu, 2017; Mooradian et al., 2016; Suzuki et al., 2015).

한편, Grit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선발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교사나 의사 등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직업군에서 선발 시 Grit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Kelly, Matthews, & Bartone, 2014). Grit이 있는 교사들이 월급이나 지역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낮은 이직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선발 시 Grit이 높은 사람을 뽑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Grit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rit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Grit의 배양은 조직 전체가 높은 성

취를 얻어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alles, Cohen, & Mueller, 2014).

2) 학습, HRD분야에서의 학습

학습은 주어진 상황에서 유기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학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행동 및 행동 잠재력의 영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의견이 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이현림, 김지혜, 2017). Rothwell과 Sredl(2000)은 학습이 훈련, 교육,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습자, 행동, 환경 관련 변인이 있다(이현림, 김지혜, 2017). 이 중 학습자 변인에 포함되는 것이 지능, 창의력, 인지양식과 같은 지적 영역과 특성, 성격, 신념 및 태도, 동기, 준비성, 전이, 불안, 연습과 같은 정의적 영역이다.

한편, HRD분야에서 학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요소이다(Swanson, 2009/2010). HRD분야에서는 HRD의 목적을 수행성과 증진과 학습역량 강화 중에서 논쟁을 할 정도로 학습을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배을규, 2009). 또한, 최근 HRD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HRD에서도 개인과 조직의 학습능력은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다(배을규, 2009).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학습은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HRD분야에서는 조직에서의 학습을 뜻하는 용어로 '일터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터학습이란 조직에서 현재 요구하는 업무나 미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학습활동으로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개발 등 학습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Jacobs & Park, 2009). 이러한 일터학습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러닝, S-OJT, 멘토링, 액션러닝 등 일과 관련된 모든 학습을 포함한다(박윤희, 박한규, 2016). 학습이 훈련, 교육,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설명되었던 것처럼, 일터학습도 훈련, 교육, 개발 등의 모든 종류를 포함하고 있다(Jacobs & Park, 2009; Rothwell & Sredl, 2000).

3) Grit과 학습, HRD분야에서의 학습과의 관계

Grit은 학습장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현림, 김지혜, 2017).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은 학습에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임과 동시에 환경 및 행동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Grit을 발현하고 육성하는 방법으로 논의되는 연습(Practice), 목적(Purpose), 희망(Hope), 흥미(Interest) 등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이현림, 김지혜, 2017; Duckworth, 2016).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인 Grit은 HRD분야에서도 흥미로운 개념이다. 비인지적 능력은 개인의 행동, 태도, 전략 등으로 표현이 되는 능력으로, HRD, 교육분야 등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있는 특성이다(Egalite, Mills & Greene, 2016).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Grit은 학습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소개되고 있음과 동시에 조직에서 관심을 가지는 성과 및 조직잔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Eskreis-Winkler et al., 2014;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HRD의 목적을 성과 패러다임이나 학습 패러다임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데(배을규, 2009), Grit은 어느 하나의 패러다임에만 해당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양쪽의 패러다임에서 목적으로 하는 결과들과 함께 연계가 된다.

Grit과 학습, HRD분야에서의 학습과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은 Grit에 대한 개별 이해는 물론 Grit에 따라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과로서의 성과는 어떠한지, HRD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특정 주제에 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검토하고, 종합 및 분석하는 통합적인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Torraco, 2005; Callahan, 2010). Grit과 학습(Learning)에 관한 통합적인 문헌연구를 통하여 HRD분야에서 Grit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헌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Rocco & Plakhotnik, 2009).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검색, 단계적 검토, 종합 및 분석 단계를 거쳤다(Torraco, 2005).

1. 자료 수집방법

문헌검색 및 단계적 검토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진이 2017년 5월에 Proquest, EBSCOhost, RISS를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연도는 Grit의 개념이 소개된 Duckworth et al.(2007)의 연구가 시작된 2007년부터 검색시점인 2017년 5월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Learning)의 범주가 훈련(Training), 교육(Education), 개발(Development)로 나누어진다는 점에 근거하여(Rothwell & Sredl, 2000), Grit과 학습(Learning), 훈련(Training), 교육(Education), 개발(Development)을 검색하였다. 검색 시 국문과 영문의 키워드를 모두 활용하여 제목과 초록에 키워드가 나타나는 학술지에 게재된 국문 혹은 영문으로 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국문 문헌은 “Grit”과 함께 “훈련” 또는 “교육” 또는 “학습” 또는 “개발”을 검색하였고, “그릿”과 함께 “훈련” 또는 “교육” 또는 “학습” 또는 “개발”을 검색하였다. 영문 문헌은 Grit과 함께 “Training” 또는 “Education” 또는 “Learning” 또는 “Development”을 검색하였다.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이면서 국영문으로 작성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데이터베이스별 검색결과, Proquest에서는 제목 검색결과 12개, 초록 검색결과 70개로 나타났다. EBSCOhost에서는 제목 검색결과 14개, 초록 검색결과 125개가 도출되었다. RISS에서는 국내

〈표 1〉 Grit과 학습 관련 연구의 자료 수집 결과

검색키워드		DB	자료 수집 결과	조건
1	Grit과 ("Training" or "Education" or "Learning" or "Development")	Proquest	총 82개 (제목: 12개, 초록: 70개)	학술지 영문
		EBSCOhost	총 139개 (제목: 14개, 초록: 125개)	학술지 영문
2	2-1. Grit과 ("훈련" or "교육" or "학습" or "개발")	RISS	총 40개 (제목: 11개, 초록: 29개)	학술지
	2-2. 그릿과 ("훈련" or "교육" or "학습" or "개발")		총 13개 (제목: 4개, 초록: 9개)	국문

학술지논문을 기준으로 제목 검색결과 15개, 초록 검색결과 38개가 도출되었다. 자료수집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 단계적 검토 및 종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검토 단계에서는 제목 및 초록 검토, 본문 상세검토를 통한 최종 문헌 선정 및 요약 실시하였다(Callahan, 2010).

단계적 검토 단계에서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여 Grit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Proquest에서는 총 39개를 선정하였고, EBSCOhost에서는 총 41개, RISS에서는 총 21개의 관련

〈표 2〉 Grit과 학습 관련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데이터베이스		
	Proquest	EBSCOhost	RISS
제목 및 초록 검토	총 39개 (제목: 8개, 초록: 31개)	총 41개 (제목: 6개, 초록: 35개)	총 21개 (제목: 10개, 초록: 11개)
논문 통합 (중복 제거)	영문 총 47개, 국문 총 11개		
본문 상세검토	영문 총 26개 선정 (척도 개발, 내용 관련성에 따른 제외)		국문 총 8개 선정 (척도 개발, 내용 관련성에 따른 제외)
최종선정 & 요약	총 34개의 논문(영문 26개, 국문 8개)이 최종분석 및 요약에 사용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후, 본문에 대한 상세검토를 실시하기 전에 중복이 되는 논문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영문 총 47개, 국문 총 11개의 논문이 도출되었다. 연구진은 58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본문 상세검토를 실시하여 내용 관련성이 적은 논문이나 척도 개발연구와 같은 논문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34개(영문 26개, 국문 8개)의 논문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진은 선정된 34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결과 등을 정리하고,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과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연구 결과

1. Grit과 학습에 대한 문헌분석 요약

문헌연구에서 선정된 문헌들을 요약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 Grit과 학습에 대한 연구 논문의 기본정보 분석

선정된 총 34편의 연구논문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게재연도 및 수행국가

게재연도는 논문검색을 실시한 2017년 6월 기준으로, 2009년 1개(2.94%), 2011년 0개(0.00%), 2012년 1개(2.94%), 2013년 2개(5.88%), 2014년 6개(17.65%), 2015년 12개(35.29%), 2016년 7개(20.59%), 2017년 5개(14.71%)로 도출되었다.

연구가 수행된 국가는 총 24편의 양적 연구를 대상으로 구분한 결과, 미국이 13개(54.17%), 한국이 6개(25.00%), 영국 1개(4.17%), 오스트리아 1개(3.57%), 포르투갈 1개(3.57%), 스웨덴 1개(3.57%), 오스트레일리아 1개(3.57%)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누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34개의 논문은 양적 연구가 24개(70.59%), 질적 연구가 10개(29.41%)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의 대다수는 학습, 교육, 훈련의 상황에서 Grit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고,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효과가 유효하게 나타난 Grit의 중요성 및 화제성에 대한 강조 연구와 이와 반대로 회의적인 측면을 주제로 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에 대한 통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 3〉 Grit과 학습의 문헌연구 요약

저자(연도)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결과
양적 연구			
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Grit, 삶의 만족, 교사의 성과에 주는 영향 확인	N= 390 (교사, USA)	Grit은 교사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Maddi et al.(2012)	Grit이 군대 훈련 프로그램의 성과, 잔여여부에 주는 영향을 확인	N= 1,285 (육군사관생도, USA)	Grit은 사관학교 프로그램 1학년 잔여여부에 유의미한 영향
Cross (2014)	Grit에 따른 박사과정 성공여부 확인	N=669 (학생, USA)	Grit은 박사과정 학생들의 성적, 공부하는 시간, 나이와 관계가 있음
Kelly, Matthews, & Bartone (2014)	Grit이 훈련잔여여부와 성과에 주는 영향 확인	N=1,558 (예비군인, USA)	Grit은 훈련잔여여부, 성과에 영향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Grit, 대학시절 점수, 리더십 잠재력이 어려운 교육환경 속 교사의 성과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N=154,307 (교사, USA)	Grit이 있는 교사들이 학생의 학업적 성취 향상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이직이 더 낮게 나타남
Salles, Cohen, & Mueller (2014)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레지던트들의 Grit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N=118 (예비직장인, USA)	Grit이 있는 레지던트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레지던트 의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짐
신민, 안도희 (2015)	영재와 평재학생의 Grit, 열망, 성취목적의 차이 확인	N=496 (학생, 한국)	영재학생들은 평재학생들보다 Grit의 요인 중 노력에 대한 인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영재학생과 평재학생의 노력에 대한 인내는 숙달 지향성과 수행집근 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	고등학생의 Grit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사이의 관계 확인	N=223 (학생, 한국)	관심에 대한 지속성: 노력에 대한 인내에 직접효과, 노력에 대한 인내를 매개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간접효과 노력에 대한 인내: 자기조절학습효능감 향상에 직접효과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5)	Grit과 자기통제수준이 학업성취도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탐색	N=535 (성인학습자, 한국)	Grit은 낮은 학교부적응과 연관이 있음
Egalite, Mills, & Greene (2016)	Grit과 지속성, 성실성, 만족에 대한 지연의 상관관계 확인. 인종, 성별, 학년, 종교적인 배경에 따른 차이 규명	N=174 (학생, USA)	Grit과 지속성, 성실성, 만족에 대한 지연 등과 상관관계가 없음. Grit은 인종, 성별, 학년, 종교적인 배경과 관계 없음

〈표 3〉 Grit과 학습의 문헌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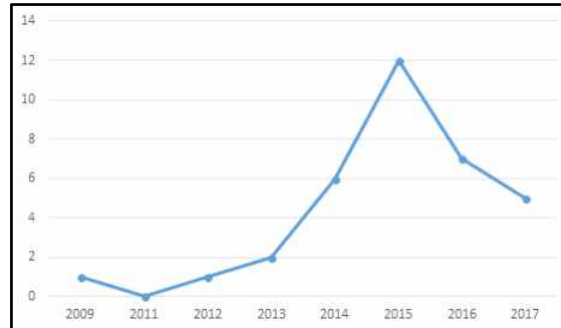
(계속 1)

저자(연도)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결과
양적 연구			
Lovering et al. (2015)	훈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탐색	N=1,350 (군인, USA)	Grit은 개인의 특성인 Hardiness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Miksza & Tan (2015)	Grit이 몰입, 연습 효율성,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탐색	N= 52,241 (교사 및 학생, USA)	Grit은 몰입, 연습 효율성,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
Milman et al. (2015)	온라인 석사과정 학생들의 Grit에 따른 차이 확인	N=64 (학생, USA)	Grit의 정도는 나이, 인종,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Wolters & Hussain (2015)	대학생들의 Grit과 자기통제학습, 학업적 성취의 관계 탐색	N=213 (학생, USA)	노력에 대한 인내: 자기통제학습의 유의미한 독립변수, 학생의 몰입을 매개로 할 경우 학업적인 성취와 연계. 관심에 대한 지속성: 자기통제학습의 일부 하위요인에만 영향, 학업적인 성취와 연관이 없음
주영주, 김동심 (2016)	Grit이 자기조절학습능력, 영재교육만족도에 주는 영향 확인	N=72 (학생, 한국)	Grit은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영재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Gilson, Dix & Lochbaum (2017)	Grit, 자기효능감, 심리적 유연성이 군대 훈련상황 속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확인	N=220 (군인후보생, USA)	Grit은 군대 훈련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Larkin, O'Connor, & Williams (2016)	운동선수의 훈련에서 Grit이 몰입과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확인	N=385 (청소년 축구선수, Australia)	Grit은 몰입, 전문성과 관계가 있음
Mooradian et al. (2016)	Grit이 혁신적인 성공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확인	N=281 (기업가, Austria)	노력에 대한 인내: 혁신적인 성공(+). 관심에 대한 지속성: 혁신적인 성공(-), 조직성과(+)
Nemmi et al. (2016)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Grit과 프로그램 참여성과의 영향 확인	N=55, 27 (학생, Sweden)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Grit에 따라 성취도에 차이를 보임
Rimfeld et al. (2016)	Grit, 성격5요인 특성이 학문적인 성취에 주는 영향 확인	N=4,642 (TEDS 참여자, UK)	노력에 대한 인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

〈표 3〉 Grit과 학습의 문헌연구 요약

(계속 2)

저자(연도)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결과
양적 연구			
Aparicio, Bacao, & Oliveira (2017)	Grit과 이러닝 시스템 사용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확인	N=383 (대학생, PORTUGAL)	Grit은 이러닝 시스템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닝 시스템에 대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김진구, 박다은 (2017)	Grit과 지능에 대한 신념, 학업성취의 관계 탐색	N=216 (학생, USA)	지능의 암묵적 신념: Grit에 긍정적 영향, Grit: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
신승환, 이온 (2017)	군인후보생의 Grit과 운동 프로그램 참여 성취의 관계 탐색	N=67 (군인후보생, 한국)	노력에 대한 인내: 성취와 유의한 상관관계. 관심에 대한 지속성: 여성의 경우 성취(전신순환기록의 향상도)와 부적 상관
임효진, 하혜숙 (2017)	Grit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확인	N=642 (성인학습자, 한국)	관심에 대한 지속성: 학업적응에 직접 효과. 노력에 대한 인내: 목표인식을 통한 학업적응에 간접효과
질적 연구			
Hokanson & Karlson (2013)	Grit은 세계화시대에 학력을 넘어서 인적자원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므로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함		
Soutter & Seider (2013)	공립교육에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학교육에서 Grit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Saltman (2014)	공립교육에서 Grit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신승환 (2014)	Grit과 같은 개인의 특질은 예비군인들의 훈련생활에 도움을 줌		
Fry (2015)	교사 자신이 학창시절 겪었던 어려움들은 개인의 Grit이 향상될 수 있게 했고, 그러한 Grit은 현재 직업적인 전문성 발휘에 도움을 주고 있음		
Golden (2017)	개인성과의 책임을 개인의 Grit에 전가하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환경과 기회 등에 대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		
Hochanadel & Finamore(2015)	교사가 학생들에게 Grit과 성장신념을 같이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McGee & Stovall (2015)	Grit과 관련된 연구는 인종차별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되지 않고 있음. Grit 또한 교육에서의 인종차별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가 발전이 되어야 할 것임		
Stokas (2015)	교육에서의 Grit에 대한 강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Gorski (2016)	Grit의 유행에 편승할 것이 아닌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환경과 기회 등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그림 1) Grit과 학습 관련 연구 게재연도

〈표 4〉 Grit과 학습 관련 연구 수행 국가

	연구 수행 국가	논문 수
1	미국	13개(54.17%)
2	한국	6개(25.00%)
3	영국	1개(4.17%)
4	오스트리아	1개(4.17%)
5	포르투갈	1개(4.17%)
6	스웨덴	1개(4.17%)
7	오스트레일리아	1개(4.17%)
	계	34개

〈표 5〉 Grit과 학습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

	연구방법	논문 수
1	양적연구	24개(70.59%)
2	질적연구	10개(29.41%)
	계	34개

<표 5>와 같다.

한편, 연구대상은 총 24편의 양적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8편(33.33%),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5편(20.83%),

군인 및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5편(20.83%),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2편(8.33%),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2편(8.33%), 기타 의료분야 종사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2편(8.33%)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Grit과 학습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대상	논문 수
1	초·중·고등학생	8개(33.33%)
2	대학생, 대학원생	5개(20.83%)
3	군인 및 사관생도	5개(20.83%)
4	교사	2개(8.33%)
5	성인학습자	2개(8.33%)
6	기타 의료분야 종사자, 교사 및 학생	2개(8.33%)
	계	24개

3) 게재학술지

Grit과 학습에 관한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의 동향은 <표 7>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Military Psychology(4회), 한국체육학회지(3회), 교육심리연구(2회),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2회), Educational Theory(2회)와 같은 학술지가 2회 이상 Grit과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게재하였고, 기타 심리학, 교육학 관련 학술지에서 1회 이상 게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4) Grit 변수의 역할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Grit이 어떠한 연구변수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Grit은 독립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 때 종속변수인 변수들은 성과 관련 변수들(성취도, 교사의 성과, 적응)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과 관련된 변수(학업 성취, 자기통제학습, 혁신적인 성공, 자기조절학습능력)들이나 훈련수료나 직장잔류 같은 잔류 관련 변수들이 있었고, 기타 숙달지향성, 수행접근지향성 등이 있었다. 긍정심리 관련 변수로 알려진 심리적 안정감, 몰입,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도 종속변수로 도출되었다. 기타 만족도(영재교육 만족도, 이러닝 시스템 사용 만족도)도 Grit의 종속변수로 도출되었다. Grit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로는 성적, 공부시간, 연령, 견고함(Hardness), 학교부적응, 몰입, 전문성, 성취도 등이 제시되었다. 기타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과의 관계에서는 Grit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Grit 변수의 역할을 표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7〉 Grit과 학습 관련 연구게재 학술지 동향

	학술지명	논문 수
1	Military Psychology	4
2	한국체육학회지	3
3	교육심리연구	2
4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2
5	Educational Theory	2
7	특수교육, 평생학습사회,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Improving Schools,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Journal of College and Characte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Journal of Educators Online, Journal of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Metacognition and Learning, On the Horizon, Online Learn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Psychological Assessment,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symploke, Teacher Education & Practice., Teachers College recor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Urban Education	1

〈표 8〉 Grit 변수의 역할

관계	관련 변수
원인변수 → Grit	· 성장신념(김진구, 박다운, 2017)
Grit → 결과변수	· 학업성취(김진구, 박다운, 2017; Wolters & Hussain, 2015; Rimpfeld, Kovas, Dale & Plomin, 2016), 학업적응(임효진, 하혜숙, 2017), 자기통제학습(노력에 대한 인내) (Wolters & Hussain, 2015), 자기조절학습능력(주영주, 김동심, 2016), 자기조절학습효능감(노력에 대한 인내)(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 · 성과(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Kelly, Matthews & Bartone, 2014; Miksza & Tan, 2015; Mooradian et al., 2016;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훈련 잔여(Maddi et al., 2012; Kelly, Matthews & Bartone, 2014), 낮은 이직율(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혁신적인 성공(+)(노력에 대한 인내) (Mooradian et al., 2016), 혁신적인 성공-(관심에 대한 지속성) (Mooradian et al., 2016), 숙달지향성(노력에 대한 인내)(신민, 안도희, 2015), 수행접근지향성(노력에 대한 인내)(신민, 안도희, 2015) · 심리적 안정감(Salles, Cohen, & Mueller, 2014), 몰입(Miksza & Tan, 2015), 자아효능감(Miksza & Tan, 2015), 영재교육만족도(주영주, 김동심, 2016), 이러닝시스템 만족도(Aparicio, Bacao, Oliveira, 2017)
상관변수	· 성적(Cross, 2014), 전문성(Larkin, O'Connor & Williams, 2016), 공부시간(Cross, 2014), 성취도(신승환, 이은, 2017; Nemmi et al., 2016), 몰입(Larkin, O'Connor & Williams, 2016), 견고함(Lovering et al., 2015), 학교부적응-(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5), 연령(Cross, 2014)

3. Grit과 학습에 대한 연구결과

Grit과 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습의 범주 안에서 Grit이 가져오는 효과와 환경을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의 큰 범주 내에 4가지의 결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범주는 학습의 상황 하에서 Grit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다룬 하위결과 2개를 포함하였고, 둘째 범주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관련된 하위결과 2개를 포함하였다.

1) 학습(훈련): 훈련프로그램 내에서 Grit이 높은 사람의 결과

총 34편의 논문 중 9편의 논문은 훈련프로그램 내에서 Grit이 높은 사람들의 성과를 다룬 논문들이다(Maddi et al., 2012; Kelly, Matthews, & Bartone, 2014). 연구결과, 훈련이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 Grit이 있는 개인들은 성과, 잔류, 긍정심리 관련 변수들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과정성취 및 수료(Nemmi et al., 2016; Rimfeld et al., 2016), 사관학교 잔여여부, 개인의 견고함(신승환, 이온, 2017; Kelly, Matthews, & Bartone, 2014; Maddi et al., 2012), 운동선수의 몰입 및 전문성(Larkin, O'Connor, & Williams, 2016), 레지던트 의사의 심리적인 안정감(Salles, Cohen, Mueller, 2014) 등에 Grit이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다. 기타 유의미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훈련 등의 상황 하에서 리더십에 따른 Grit의 차이를 보고자 시도하였다(Gilson, Dix & Lochbaum, 2017).

2) 학습(교육): 공식교육에서 Grit이 높은 사람의 결과

총 34편의 논문 중 12편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Grit이 높은 사람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논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rit과 학습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Grit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신승환, 2014; Hochanadel & Finamore, 2015; Hokanson & Karlson, 2013). Grit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3편의 연구에서는 Grit과 같은 개인의 특질은 세계화시대에 지성과 학력을 넘어서 인적 자원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고, 교육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ochanadel & Finamore, 2015; Hokanson & Karlson, 2013). 또한,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Grit이 있으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Hochanadel & Finamore, 2015).

9편의 선행연구에서 Grit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몰입, 연습 효율성, 자아효능감, 자기통제학습, 학업적인 성취, 조직성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 낮은 학교부적응, 학업적응, 이러닝 시스템 사용에 대한 만족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 임효진, 하혜숙, 2017;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5; Aparicio, Bacao, & Oliveira, 2017; Cross, 2014; Miksza & Tan, 2015; Wolters & Hussain, 2015). 일부 연구에서는 영재

와 일반학생의 Grit의 차이와 더불어 Grit이 숙달지향성, 수행접근지향성, 자기조절학습능력, 영재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신민, 안도희, 2015; 주영주, 김동심, 2016). 한편,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Grit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Grit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연구한 논문임에 반해, Grit을 결과변수로 살펴보는 논문도 존재하였다(김진구, 박다은, 2017). 김진구와 박다은(2017)의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 신념을 가지는 것이 Grit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기타 유의미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Grit이 지속성, 성실성, 만족에 대한 지연, 인종, 성별, 나이, 학년, 종교적인 배경과의 관계를 보고자 시도한 선행연구가 있다(Egalire, Mills, & Greene, 2016; Milman et al., 2015).

3) 환경: 열악한 상황 속에서 Grit이 높은 사람의 결과

Grit은 열악한 상황 및 실패, 역경, 정체기 등의 장애요인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한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특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이러한 Grit의 특성은 비슷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실성, 회복력 등과 가장 크게 구분이 되는 특성이다(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문헌 분석 결과, 4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Grit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교사,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편의 논문은 낮은 임금이나 좋지 않은 근무환경, 열악한 지원시스템에 놓인 교육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도출해야 하는 성과와 재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Fry, 2015;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교사 자신이 Grit을 가지고 성장했던 성장과정은 현재의 직업적인 전문성 발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ry, 2015;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또한, Grit이 있는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성취에 더욱 도움을 많이 주고, 이직 또한 낮게 나타났다(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한편, Mooradian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모험을 많이 마주하는 기업가들 사이에서 Grit의 성질을 가진 기업가의 혁신적인 성공,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4) 환경: 환경개선의 필요성

총 34편의 논문 중 6편의 논문에서는 Grit의 양성을 공식교육 등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 대해 논의하고 있다(Golden, 2015; Gorski, 2016; McGee & Stovall, 2015; Saltman, 2014; Soutter & Seider, 2013; Stokas, 2015). 6편의 논문은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고, Grit의 화제성으로 인해 간과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논문들에서는 IQ와 상관없이 성공을 예측하는 특성인 Grit을 공식교육에서 도입하려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Grit이 공립교육에서 도입하려는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는 Grit이 IQ와 지능에

상관없이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점과 Grit은 개발될 수 있다는 특성이 기존의 선천적인 재능이 성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Grit을 통해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교육 상황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환경적인 불평등에서 오는 차이와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성공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시키는 상황을 야기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개인의 Grit에 대한 강조보다는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환경과 기회 등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Golden, 2015; Gorski, 2016; McGee & Stovall, 2015; Stokas, 2015). 또한 Grit이 고등교육의 교육과정에서까지 강조가 되어야 하는 특성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Soutter & Seider, 2013).

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Grit과 학습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통하여 HRD분야에서의 Grit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에 있었다. Grit과 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훈련, 개발, 교육으로 나누어지는 학습의 범주 안에서 Grit이 가져오는 효과와 환경을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연구들은 훈련이나 학습프로그램 내에서 Grit이 높은 사람의 결과를 규명하거나, 공식교육에서 Grit이 높은 사람의 결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특성으로서의 Grit,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rit과 학습의 문헌연구 결과가 HRD분야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하다. 본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학문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HRD분야와 접목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Grit과 학습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HRD분야와 접목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게재학술지를 살펴보면 Military Psychology, 한국체육학회지 등 군대, 체육계, 의료계 등의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학술지의 성격을 살펴보면, 심리학과 더불어 교육학 관련 학술지에서 게재가 되어왔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HRD분야의 학술지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 상황 속에서 도출되는 Grit의 결과변수는 HRD분야에서도 관심이 많은 변수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HRD분야에서도 Grit에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HRD 및 기업교육에서도 Grit을 활용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HRD변수로 활용한다. 연구결과, 장기적인 시점에서

Grit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진구, 박다은, 2017; Salles, Cohen, & Mueller, 2014; Kelly, Matthews, & Bartone, 2014). Grit은 장기적 관점에서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변수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이 충분하지 않은 기존의 HRD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이다. 이에 HRD분야에서 관심을 가지는 장기적인 변수인 학습전이, 경력개발, 이직률, 조직문화 성과 등의 다양한 변수들과 Grit을 접목시켜 연구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종단연구 등을 통하여 Grit이 높은 개인이 어떻게 개인개발 및 경력개발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Grit이 개인의 성과 및 경력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 등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Grit은 제한적인 변수 역할과 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rit은 대다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있었고, 상관분석과 같은 기초통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Grit을 결과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선행요인들과의 관계 탐색 및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Grit의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여러 다양한 심리학적 요인들의 변인이나 환경적인 변인의 탐색을 통하여 Grit의 선행변수들을 탐색하는 것은 Grit 배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Grit이 기대했던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없거나 종속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다(Egalite, Mills, & Greene, 2016). 이 점 또한 Grit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Grit의 측정도구 재개발에 대한 시사점도 제기하고 있다(Egalite, Mills, & Greene, 2016). Grit의 하위요인 중 노력에 대한 인내는 성취를 예측하지만, 관심에 대한 지속성은 혁신적인 성과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도출되었다(Mooradian et al., 2016; Wolters & Hussain, 2015). 또한, Grit의 개념에 성장신념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Hochanadel & Finamore, 2015). Grit의 측정도구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넷째, Grit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및 HRD분야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Grit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Grit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논의들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Grit 개념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질적 연구에서 비판하는 관점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연구들이 후속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Grit을 채용 전후 및 그 외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개인 Grit의 향상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결과, 성과, 심리적 만족, 몰입 등 HRD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성과 및 학습 관련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 인 · 적성 검사, 면접 등에 Grit이 높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채용 후에는 OJT, S-OJT 등 기업교육에서 Grit이 높은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도 활용한다.

둘째, Grit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인역량 측면 관련 프로그램에서 Grit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하여 Grit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 리더십역량 관련 프로그램에서 Grit이 높은 인재를 길러줄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구성원의 Grit을 길러 줄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Grit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 분석,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매체 및 교육방법 개발 등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지원이 활발한 조직문화 구축 및 조직개발에 활용한다. 많은 질적 연구에서 Grit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의 전제조건으로 환경개선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는 HRD분야에서 Grit이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논의 시 조직지원 및 조직문화 등의 환경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Golden, 2015). HRD분야에서는 Grit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존중해 주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조직구성원 개인의 Grit에 대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별다른 개입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조직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넷째, 경력개발 및 인력경영에 Grit을 활용하는 것이다. Grit이 높은 인재를 핵심인재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Grit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경력개발과도 연계가 될 수 있어 개개인의 좋은 성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Grit이 높은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업무적합성과 함께 고려하여 직무를 할당한다면, 이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우철, 김지영 (2017). Work grit의 개념과 HRD분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7년 한국 HRD 연합학술대회. 11월 24일. 서울: 서울시 인재개발원.
- (Translated in English) Kim, W. & Kim, J. (2017). Exploring Grit in HRD context: A definition of 'Work-Grit' and Conceptual Model. *2017 Korea HRD conference*.
- 김주환 (2017). 성취의 원동력 - 내적 소통을 통한 마음근력 강화 훈련법. 제11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9월 8일. 서울: 코엑스.
- (Translated in English) Kim, J. (2017). Driving force of achievement. *11th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ference*.
- 김진구, 박다은 (2017).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투지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1(1), 145-162.
- (Translated in English) Kim, J. & Park, D. (2017). The longitudinal effects of theory of implicit intelligence on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1), 145-162.
- 배을규 (2009). 인적자원개발론. 서울: 학이시습.
- (Translated in English) Bae, E. (2009).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oul: Hakisiseub.
- 박윤희, 박한규 (2016). 일터학습개론. 경기: 양서원.
- (Translated in English) Park, Y. & Park, H. (2016). *Workplace Learning*. Gyeonggi: Yangseowon.
- 신 민, 안도희 (2015). 영재와 평재 고등학생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 grit, 열망 및 성취목적 비교. *영재교육연구*, 25(4), 607-628.
- (Translated in English) Shin, M. & Ahn, D. (2015). Comparisons of Perceptions of Success, Grit, Aspiration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between Gifted and Non-gifte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5(4), 607-628.
- 신승환, 이 온 (2017). 15 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관생도의 체력 향상도와투지 (Grit) 수준 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6(2), 591-603.
- (Translated in English) Shin, S. & Lee, O. (2017). A Correlation Research between Fitness Improvement and Grit Scale of Cade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2), 591-603.
- 신승환 (2014). 인문, 사회과학편: 생도들이 대외경기에서 체득한 체육의 가치탐구.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3(4), 441-453.
- (Translated in English) Shin, S. (2017). Physical Education's Value, Midshipmen got from Football Match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3(4), 441-453.
-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 고등학생의 그릿(Grit)과 객관적 추론, 자기조절학습효능감 간의

- 관계 규명. 청소년학연구, 22(10), 367-385.
- (Translated in English) Yoo, Y. You, J., & Park, H. (2015). A Relationship among Grit, Objective Reason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Efficacy of High-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367-385.
- 이현림, 김지혜 (2017). 성인학습 및 상담 제 2판. 서울: 학지사
- (Translated in English) Lee, H. & Kim, J. (2017) *Adult learning and counseling*. Seoul: Hakjisa
- 임효진, 하혜숙 (2017). 원격대학 여성 성인학습자들의 끈기 (Grit) 와 목표인식, 학업-가정갈등 및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1(1), 59-81.
- (Translated in English) Lim, H. & Ha, H. (2017). The Effects of Grit, Goal Perception, Academic Work-Family Conflict and Social Support on Academic Adjustment among Female Adult Learners in a Distance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1), 59-81.
- 장원섭 (2017). '오래된 미래'를 향한 HRD: '장인'으로부터 배우다. 2017년 한국인력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 6월 9일. 서울: 단국대학교.
- (Translated in English) Jang, W. (2017) HRD toward the old future: Learning from master. *2017 Korea Human Resource spring conference*.
- 주영주, 김동심 (2016). 영재학생의 그릿 (꾸준한 노력, 지속적 관심), 교사지원, 부모지원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영재교육만족도에 대한 예측력 검증. *특수교육*, 15(1), 29-49.
- (Translated in English) Ju, Y. & Kim, D. (2016). Influence of Grit (Perseverance of Effort and Consistency of Interest), Teacher Support, and Parent Support on Self-Regula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in Children in a Gifted Education Program, *Special Education Research*, 15(1), 29-49.
-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5). 끈기와 자기통제 집단수준에 따른 성격요인의 예측력 및 학교 부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1(3), 145-166.
- (Translated in English) Ha, H., Lim, H. & Hwang, M. (2015). The Group Difference of Grit and Self-control and its Relations to School Maladjust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Predictability of Personal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1(2), 145-166.
- 홍아정, 원명희, 박규미, 이지훈, 조윤성 (2017). Grit (GRIT) 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학습의 매개 효과. *상업교육연구*, 31(5), 33-58.
- (Translated in English) Hong, A., Won, H. Park, M., Lee, J. & Jo, S. (2017). Effects of GRIT on Affective Commitment and a Mediating Effect of Reflective Learning.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1(5), 33-58.
- Aparicio, M., Bacao, F., & Oliveira, T. (2017). Grit in the path to e-learning succ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6, 388-399.
- Callahan, J. L. (2010). Constructing a manuscript: Distinguishing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s and

- conceptual and theory articl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9(3), 300-304.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6).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
- Cross, T. M. (2014). The Gritty: Grit and Non-Traditional Doctoral Student Success. *Journal of Educators Online*, 11(3), 1-30.
- De Vera, M. J., Gavino Jr, J. C., & Portugal, E. J. (2015). Grit and superior work performance in an Asian context. In *Proceedings of 11th International Busines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Conference*.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Y: Simon and Schuster.
- Duckworth, A. L. & Gross, J. J.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L., Quinn, P. D., & Seligman, M. E. (2009).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40-547.
- Duckworth, A. L., & Yeager, D. S. (2015). Measurement matters: Assessing personal qualities other than cognitive ability for educational purposes. *Educational Researcher*, 44(4), 237-251.
- Egalite, A. J., Mills, J. N., & Greene, J. P. (2016). The softer side of learning: Measuring students' non-cognitive skills. *Improving Schools*, 19(1), 27-40.
- Eskreis-Winkler, L., Duckworth, A. L., Shulman, E. P., & Beal, S.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3(5), 1-12.
- Fry, S. W. (2015). Grit, Biography, and Dedicated Teachers Who Struggled Academically as Students. *Teacher Education & Practice*, 28(4), 627-645.
- Gilson, T. A., Dix, M. A., & Lochbaum, M. (2017). "Dr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variables and effective squad leadership. *Military Psychology*, 29(1), 58-67.
- Golden, N. A. (2017). There's still that window that's open: The problem with "grit". *Urban Education*, 52(3), 343.
- Gorski, P. C. (2016). Poverty and the ideological imperative: a call to unhook from deficit and grit ideology and to strive for structural ideology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42(4), 378-386.
- Hochanadel, A., & Finamore, D. (2015). Fixed and growth mindset in education and how grit helps students persist in the face of ad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11(1), 47-50.

- Hokanson, B., & Karlson, R. W. (2013). Borderlands: developing character strengths for a knowmadic world. *On the Horizon*, 21(2), 107-113.
- Ion, A., Mindu, A., & Gorbănescu, A. (2017). Grit in the workplace: Hype or rip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1, 163-168.
- Jacobs, R. L., & Park, Y. (2009). A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of workplace learning: Implications for theory development and research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8(2), 133-150.
- Kelly, D. R., Matthews, M. D., & Bartone, P. T. (2014). Grit and hardiness as predictors of performance among West Point cadets. *Military Psychology*, 26(4), 327-342.
- Larkin, P., O'Connor, D., & Williams, A. M. (2016). Does grit influence sport-specific engagement and perceptual-cognitive expertise in elite youth soccer?.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8(2), 129-138.
- Lovering, M. E., Heaton, K. J., Banderet, L. E., Neises, K., Andrews, J., & Cohen, B. S. (2015). Psycholog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US Marine recruits. *Military Psychology*, 27(5), 261-275.
- Maddi, S. R., Matthews, M. D., Kelly, D. R., Villarreal, B., & White, M. (2012). The role of hardiness and grit in predicting performance and retention of USMA cadets. *Military Psychology*, 24(1), 19-28.
- McGee, E. O., & Stovall, D. (2015). Reimagining critical race theory in education: Mental health, healing, and the pathway to liberatory praxis. *Educational Theory*, 65(5), 491-511.
- Miksz, P., & Tan, L. (2015). Predicting collegiate wind players' practice efficiency, flow, and self-efficacy for self-regul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instruction and students' practicing.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63(2), 162-179.
- Milman, N. B., Posey, L., Pintz, C., Wright, K., & Zhou, P. (2015). Online Master's Students Perceptions of Institutional Supports and Resources: Initial Survey Results. *Online Learning*, 19(4), 45-66.
- Mooradian, T., Matzler, K., Uzelac, B., & Bauer, F. (2016). Perspiration and inspiration: Grit and innovativeness as antecedents of entrepreneurial succes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56, 232-243.
- Nemmi, F., Nymberg, C., Helander, E., & Klingberg, T. (2016). Grit is associated with structure of nucleus accumbens and gains in cognitive training.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8(11), 1688-1699.
- Reed, L., & Jeremiah, J. (2017). Student Grit as an Important Ingredient for Academic and Personal Success. *Developments in Business Simulation and Experiential Learning*, 44(1), 252-256.
- Rimfeld, K., Kovas, Y., Dale, P. S., & Plomin, R. (2016). True grit and genetics: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from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5), 780-789.

- Robertson-Kraft, C., & Duckworth, A. L. (2014). True grit: Trait-level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predicts effectiveness and retention among novice teachers. *Teachers College record*, 116(3), 1-27.
- Rocco, T. S., & Plakhotnik, M. S. (2009). Literature reviews, conceptual frameworks, and theoretical frameworks: Terms, functions, and distinctions.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8(1), 120-130.
- Rothwell, W. J., & Sredl, H. J. (2000). The ASTD reference guide to workplace learning and performance: Present and future roles and competencies (Vol. 1).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 Salles, A., Cohen, G. L., & Mueller, C. 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sident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207(2), 251-254.
- Saltman, K. J. (2014). The austerity school: Grit, character,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ducation. *sympleke*, 22(1), 41-57.
- Soutter, M., & Seider, S. (2013). College access, student success, and the new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and Character*, 14(4), 351-356.
- Stokas, A. G. (2015). A genealogy of grit: Education in the new gilded age. *Educational Theory*, 65(5), 513-528.
- Suzuki, Y., Tamesue, D., Asahi, K., & Ishikawa, Y. (2015). Grit and work engagement: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0(9), 1-11.
- Swanson, R. A. (2010). 인적자원개발론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2nd ed.)]. (오현석, 이현웅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9에 출판)
- Torraco, R. J. (2005). Writing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s: Guidelines and exampl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4(3), 356-367.
- Von Culin, K. R., Tsukayama, E., & Duckworth, A. L. (2014).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4), 306-312.
- Wolters, C. A., & Hussain, M. (2015). Investigating grit and its relation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etacognition and Learning*, 10(3), 293-311.

Grit과 학습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외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김 우 철 김 지 영[†] 박 민 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요약〉

최근 HRD분야에서는 심리학·교육학 등에서 시작된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을 뜻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Gri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실시된 HRD 분야에서의 Grit과 관련된 연구는 HRD분야에서 성과와 학습 관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관련된 변수와의 연구만 일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RD분야에서 Grit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 및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Grit과 학습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Grit과 학습의 관계를 살펴보는 통합적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을 검색하고, 검색한 문헌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으며, 최종선정된 문헌을 대상으로 종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Grit과 학습에 대한 연구 논문의 기본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수행연도, 수행국가,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게재학술지, Grit 변수의 역할 등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분석 결과 문헌들을 Grit이 높은 사람이 훈련프로그램에서 가져오는 결과, Grit이 높은 사람이 공식교육에서 가져오는 결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Grit이 높은 사람의 결과, 기타 환경 개선의 필요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Grit, 학습, 성과, HRD, 개인특성

* 본 논문은 2017 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김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수료,
jykim.summer@gmail.com

논문접수일 : 2018. 05. 04 / 논문수정일 : 2018. 06. 15 / 게재확정일 : 2018. 06. 25